



세계화시대 대학 국제교류의 방향

임 석 준 |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I. 대학의 국제교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어사전에서는 교류(交流)를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교류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exchange인데, Collins Cobuild 영어사전에 의하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는 장치(arrangement in which people from two different countries visit each other's country, to strengthen links between them)”로 설명하고 있다. 동·서양 모두 교류를 ‘상호간 주고받는 행위’(reciprocal giving and receiving)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관심사인 대학의 국제교류는 ‘대학이 주체가 되어 국경 너머 다른 대학과 필요한 것들을 상호간 주고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국제교류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합의를 하였다면, 다음 과제는 과연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싼 거래 비용을 들여 국경 넘어 상대와 교류한다는 것은 국내에 그 재화가 없거나 혹은 국내에서 보다 외국에서 그 재화를 찾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의 국제교류는 외국 대학

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수의 학술교류와 학생의 어학·강의교류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주고받는다든 의미에서의 ‘교류’(exchange)라는 단어에 걸맞지 않게 우리 대학의 국제교류는 일방향적(unidirectional)이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일부 지역 편향적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신 지식과 신기술, 그리고 언어를 배우기 위해 세계 각처에 약 15만 명의 유학생을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 ‘수입’ 외국인 유학생은 그의 1/20에도 못 미치는 6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과의 자매결연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

현재의 국제교류 패턴은 과연 21세기 한국 대학들의 세계화에 바람직한 방향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작금의 국제교류는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더 나아가 그 개선책은 무엇인가? 한국 대학의 국제교류 현황을 일괄·집합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커다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고는 위에서 제시한 질문을 중심으로 한국 대학의 국제교류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대학 국제교류의 현황과 특징

한국 대학의 국제교류 현황에서 가장 잘 반영하

(표 1) 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1998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대학 수	자매결연 현황			미체결 대학 수
		우리나라 대학 수	상대 국가 수	상대 대학 수	
국·공립	45	42	40	560	3
사립	142	112	82	2,057	30
계	187	154	122 (82)	2,617 (1,536)	3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2001),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안)," (www.moe.go.kr/주요정책 소개/국제협력).

※ ()안은 순계임

는 지표는 해외 대학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통계이다. 2001년 6월에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187개 대학 중 154개 대학이 82개 국가 2,617개 외국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본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자매결연을 전혀 체결하지 않은 국내 대학도 무려 33개나 있다는 점이다).

자매결연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자매결연 상대 대학 수가 1992년 920개에서 1998년 2,617개로 6년 사이에 무려 284%의 증가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교류 활동을 한 국내 대학의 숫자는 1992년 90개에서 1995

년 98개 대학으로 매년 2% 정도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1996년부터는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국내 대학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¹⁾ 또한 한국의 대학들은 평균 자매결연 외국 대학의 수를 꾸준히 늘려 왔음을 알 수 있다(대학 당 평균 자매결연 외국 대학 수 참조). <표 2>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상대 국가 당 평균 자매대학 수'이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의 특정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교류활동이 거의 없는 국가(콩고, 차드, 앙골라 등)와 교류활동이 왕성한 국가(일본, 중국, 미국)를 모두 동일한 무게로 환산하여 '상대 대학 수'로 나눈 수치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은

(표 2) 자매결연 체결 현황(1992~1998)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우리나라 대학 수(a)	90	92	97	98	115	130	187
상대 국가 수(b)	56	61	63	67	69	76	82
상대 대학 수(c)	920	1,056	1,226	1,538	1,743	2,130	2,617
대학 당 평균 자매결연 외국 대학 수(c/a)	10.2	11.5	12.6	15.7	15.2	16.4	14.0
상대 국가 당 평균 자매대학 수(c/b)	16.4	17.3	19.5	23.0	25.3	28.0	31.9

자료 : 상동. 단 '대학 당 평균 자매결연 외국 대학 수' 와 '상대 국가 당 자매대학 수' 는 저자가 계산함.

* 1998년 조사에서 산업대, 교육대 추가

1) 1998년 수치는 산업대와 교육대가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가폭을 과장시킨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후의 증가는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3〉 주요 국가별 현황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영국	기타(76국)
우리나라 대학 수	135	120	105	68	51	48	-
상대국 대학 수	771 (433)	431 (172)	363 (229)	150 (93)	72 (28)	85 (57)	745 (524)
과대대표 정도(상대국 대학 수/국가 당 자매대학 수 31.9)	24.2배	13.5배	11.4배	4.7배	2.3배	2.7배	0.31

자료 : 상동. 단, '과대대표 정도'는 저자가 계산함.

1992년 한 국가 당 16.4개의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그 수치는 6년 후 31.9개로 거의 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국가별 자매결연 체결 현황에 의하면, 한국 대학의 국제교류 대상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자매결연 대학의 합은 1,565개로 전체의 60%를 점하고 있는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1998년 '상대 국가 당 평균 자매대학 수'가 31.9개임을 감안하여 이들 국가들의 과대대표 정도(degree of over-representation)를 계산해 보았는데, 미국(24.2배), 중국(13.5배), 일본(11.4배)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표 3〉에 예시된 6개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의 '상대 국가 당 평균 자매대학 수'는 평균 31.9 보다 크게 모자라는 9.8개를 기록했으며 이들은 0.31배의 과대대표 정도를 보였다.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짧은 역사에 비해 중국이 자매결연 대학 서열 2위를 차지함으로써 한국 대학들의 중국 러시(China rush)가 뜨거움을 알 수 있다.

Ⅲ. 대학 국제교류의 문제점 - 외형적 실적 위주의 교류

〈표 1, 2, 3〉에서 나타난 한국 대학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을 토대로 우리는 대학들이 형식주의에 얽매인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의 자매결연 실태와 국내 유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쉽게 나타난다. 〈표 4〉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 수를 나타내는 표이다. 외국 유학생은 어학연수 기관부터 대학원에 재학하는 자비유학생 및 각종 장학금을 수여 받는(초·중고교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을 의미하며, 그 수는 1992년 불과 2천 명 정도에서 2000년 6천 명으로 300% 증가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율은 〈표 2〉에서 제시한 '자매결연 대학의 증가율'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 유학생 수를 자매결연 대학의 수로 나누어 보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1998년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5,326명이고 동년 우리 대학들은 외국의

〈표 4〉 연도별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 수

학년도별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유학생 수	1,989	1,908	1,879	1,983	2,143	4,753	5,326	6,279	6,16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유학관련 통계(www.moe.go.kr/주요정책 소개/국제협력)

〈표 5〉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00년(초·중·고교생 제외)

유학 형태별	취 학 기 관 별					
	어학연수	전문대	대학	대학원	기타	계
자비 유학생	1,691	144	1,702	1,102	95	4,734
정부 초청 장학생	85	-	8	115	-	208
대학 초청 장학생	92	14	332	352	44	834
자국정부 파견 장학생	10	1	25	2	-	38
기 타	18	4	31	126	167	346
합 계	1,896	163	2,098	1,697	306	6,16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유학관련 통계(www.moe.go.kr/주요정책 소개/국제협력)

〈표 6〉 국제교류 전담 부서 설치 현황

구 분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계
○ 외국인 재학 대학 수	32개교	114개교	72개교	218개교
○ 국제교류 부서 설치교	28교	84교	59교	171교
- 처·실·국 단위	4개교	6개교	5개교	15교
- 과 단위	4개교	23개교	14개교	41교
- 재 단위	20개교	55개교	40개교	115개교
○ 전담 직원 총수	66명	196명	111명	373명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유학관련 통계(www.moe.go.kr/주요정책 소개/국제협력)

2,617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즉, 외국의 자매결연 대학 1개교 당 평균 2명의 유학생을 한국에 파견했다는 것이다.²⁾ 위와 같은 수치는, 우리 대학들이 자매결연의 주요 목적인 학생교류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이지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국제교류는 제도적 장치는 잘 갖추었지만, 그 제도는 활용하지 않는 속 빈 강정임을 극명히 볼 수 있다.

왜 이처럼 자매결연 대학은 많지만 실질적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자매결연이 대학교위 관계자들 몇몇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결여한 상태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과거 유학하던 외국의 대학과 현재 사적으로 교류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대학이 업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교류 업무는 날로 증가하지만, 처·실·국 단위의 국제교류 전담 행정 부서를 운영하는 학교는 15개 대학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직원의 수가 각 대학 당 평균 1.5명밖에 없는 상황

2) 이 수치는 외국인 유학생 모두가 자매결연 학교의 채널을 통해 한국으로 왔다고 가정한 수치이다. 따라서 실제로 자매 대학의 채널을 이용한 유학생의 숫자는 훨씬 작을 것이다.

에서(218개교 373명) 국제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게 우리의 현주소이다.

이 두 가지 원인이 결합되어 우리 대학의 국제교류는 소위 '부실화를 향한 하향곡선(downward spiral)'의 시나리오에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신입 총장이 부임하면 그는 기존에 있는 자매결연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시도한다. 왜냐하면 그의 업적은 재임 기간 '몇 개의 국가, 그리고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는가'라는 양적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대다수 대학에는 총장의 왕성한 대외 활동을 뒤이어 주고(follow-up), 업무의 연속성(continuity)을 제공해 줄 만한 전문가 집단 혹은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가 거듭할수록 자매결연 대학의 수는 늘어나고 국제교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형적 성장을 하지만, 실질적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실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IV. 국제교류의 교도(交道)

만약 장사꾼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상도(商道)가 있다면, 국제교류에서도 적절한 윤리의식과 도덕, 즉 국제교류의 교도(交道)가 있는가? 만약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적절한 국제교류의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교도 1 : 국제교류를 수익 사업으로 인식하지 말 것

대학의 국제교류는 무역과 마찬가지로 교류 당사자들에게 이득(benefit)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국제교류를 대학의 단기적 수익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임을 경고하고 싶다.

사실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학들은 외국 유학생 유치에 의해 대학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2005년에는 대학의 모집 정원이 약 2만 5천 명 정도 미달되기 시작하며, 불행히도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여 2015년에는 대학의 정원 대비 17만 명의 수험생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자유무역의 조류에 휩쓸려 고등교육 시장마저도 개방된다면 해외의 우수한 대학이 앞다투어 한국에 분교를 설치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중의 압박(소비자 감소 + 경쟁자 증가)에 당면하여 우리 대학들은 국제교류 특히 해외 유학생 유치를 하나의 돌파구로 이용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가 연간 1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학생 유치 사업이 대학과 주변 공동체의 중요한 수익사업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미국 유학생의 약 70%가 자비유학임을 감안한다면, 미국은 세계 고급인력을 돈 받고 유치할 뿐만 아니라(financial gain) 유학 후에도 외국의 고급두뇌가 미국 노동시장에 엄청난 기여를 함으로써(brain gain)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한 "핑 먹고 알 먹기"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들은 미국의 유학 정책을 모방하여, 적극적인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곧 단칠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애국적 입지에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추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현주소가 과연 미국의 그것과 동일한가? 우리 대학들이 시설, 교육 커리큘럼, 주변 여건, 그리고 향후 진로 등 모든 면에서 미국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수요자의 입장에서—같은 가격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였듯이—한국에서 유학하는 비용과 미국에서 유학하는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비용(cost)과 이익(benefit)을 따져 보면 분명히 이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게임 구조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비용은 각 대학이 부담하고, 이익은 국가 전체로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선뜻 투자를 꺼리고 있다.

”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과연 몇 명의 학생이 자비를 들여 한국으로 오겠는가? 최근 경향을 보면 조기 유학생이 날로 늘고 있다. 우리 국민 들마져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의 근본적 문제인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는 임기응변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교도 2 : 남-남(south-south) 협력을 통한 수평적 국제협력 관계의 모색

1990년대 초부터 국제 사회의 원조 공여국(donor country) 대열에 합류한 한국은 국제교류에 있어서 거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인식론적 전환이란 바로 그 동안 '보내는 유학'에서 향후 '받아들이는 유학'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동시에 국제교류에 있어서 수직적 협력에서 수평적 협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국제 협력 및 교류의 대부분은 선진국-후진국간 이루어지는 수직적 구조였다. 그 동안 한국의 국제교류 대상 역시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에 편향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계화와 경제 지역화(regionalization)의 동시적 진행으로 현재는 역내 국가들간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 체제를 설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간에 이

루어지는 다양한 수평적 협력 체제에 참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경제사회 개발을 달성한 국가로서 개도국간에 이루어지는 수평적 협력 체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유엔개발계획에서 언급하는 '발전도상국들의 기술협력'(TCDC :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이란 발전도상국들의 다양한 행위 주체(교육·연구 기관, NGOs, 시민사회, 경제 기구 등)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나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발전 경험과 기술력 등을 공유하는 수평적 형태의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의미한다. 일방적 의존관계로 이루어지는 선-후진국 협력과는 달리 발전국가들간 협력은 서로에게 '적합하고 가격-효과적'(appropriate and cost-effective)인 지식과 경험을 전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자본이나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오직 우수한 인력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과 성공적인 정치발전을 이루었다. 한국 인력개발의 원천은 교육에 있었으며, (비록 한국의 대학교육이 세계 일류는 아닐지라도) 한국의 발전의 모델을 습득하려는 아시아의 국가들에게는 선진국에 비해 더욱 적절한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제기구의 다양한 기금의 혜택을 많이 받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면,
국제기구로부터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국제교류의 정당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이 남-남 교육교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

V. 현실적 장애물 : 현지 학생들의 유학 자금 부족

무엇보다 저개발국의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주저하는 이유는 (제공되는 교육의 질에 비해) 비싼 수업료와 생활비 때문이다. 향후 한국 대학들이 중점적으로 유치해야 할 해외 유학생들은 1인당 국민소득 \$1,000 미만에 있는 국가들인데, 이곳의 학생들이 자비로 한국에 유학을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수평적 교류체제의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의 싸고 우수한 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에 유학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먼 훗날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신념 하에 남-남 교육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비용(cost)과 이익(benefit)을 따져 보면 분명히 (장기적) 이익이 (현재의) 비용보다 더 큰 게임 구조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비용은 각 대학이 부담하고, 이익은 국가 전체로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선뜻 투자를 꺼리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학들이 앞다투어 장학금을 지급하여 외국 학생들을 교육시키더라도 투자의 결과를 사유화할 수 없다면 대학들은 투자를 꺼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공공재가 사적 행위

자들에 의해 공급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논리이다.

VI. 신교류 모델 : 국제기구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UNESCO, UNDP 등의 국제기구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을 위한 다양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 UNDP는 인간개발을 “국민 개개인의 기본 능력, 즉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교육받고 지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인간다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은 인간개발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정의에 입각해 만든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의하면 한국은 UNDP가 조사한 174개국 중 31위로 높은 인간개발 단계에 진입한 국가이다. 반면, 베트남은 108위, 인도는 128위, 그리고 우리와 교류 폭을 넓혀야 하는 미얀마(125위), 라오스(140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간개발지수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UNDP 2000 : 157~9).

우리 대학들은 남-남 교류에 입각한 유학생 유치 방안으로 국제기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국가들은 국제기구의 다양한 기금의 수

혜국(beneficiary), 즉 분담금에 비해 혜택을 많이 받는 국가들이다(한국은 1990년 초 수혜국 대열에서 졸업함).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면, 국제기구로부터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국제교류의 정당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이 남-남 교육교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VII. 결론 : 세계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 부모의 노력과 헌신 덕에 성장하여 혼자서 삶을 꾸려 갈 여유가 생길 때 즈음이면 부모는 벌써 우리의 곁을 떠나는, 즉 '값음의 대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에게 갚는 방법은 바로 헌신과 사랑을 대물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 공동체를 지탱해 준 풍요로움의 출발이다.

1950~1960년대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시절, 한

국의 많은 인재들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하였다. 그들은 귀국 후 다방면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의 몇몇한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부모-자식의 비유를 선진국-후진국으로 연장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얻은 혜택을 갚는 방법은 대물림을 통해 우리보다 여건이 어려운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대학의 당면한 시대적 요청이자 국제교류의 교도(交道)가 아닌가 싶다. **김진**

입석준

고려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UNDP(유엔개발계획) 자문관, 사회과학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The Political Economy of Orderly Marketing Agreements", "사양산업을 구제할 수 있을까?—대만의 하청 생산연결망이 주는 교훈" 외 다수가 있다.